

9. 스바냐 - “여호와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 2:3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는

스바냐는 유다임금 요시아 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누군가를 이야기 할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오늘처럼 누구의 ‘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를 언급하기 위해서겠죠.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유다 왕 중에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유다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형제 나라인 북 이스라엘은 이미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 유다는 강성한 앗수르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릴 때니 말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때가 아닐까요?

복을 주시던 벌을 주시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면 좋을 텐 데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니, 죄악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1장 12절.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니

스바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유형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됩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묵상해 봅시다.

컵에 가라앉은 찌꺼기든, 강과 바다의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 같은 찌꺼기든, 지금은 잠잠한 것 같지만 막대기로 휘저으면 더러운 것이 떠다니며 온 물을 흐려놓습니다.

이런 찌꺼기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가라앉아서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 .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냉담자’ ‘회의론자들’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무서움도 알고 두려움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 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기대감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의롭게 살아갈 텐데, 이런 모든 의지를 꺾는 나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등불로 찾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보다 더 나쁜 자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자들입니다. 스바냐는 어떤 선지서 보다는도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스바냐의 예언은 단순히 자신의 조국 유다의 멸망뿐 아니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심판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노로 인한 멸망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흔타하고 죄악된 세상일수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이 빛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웠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3:13)

왜 우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할까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해 지겠지요.

▣ 정직한 마음보다 중요한 것

언제부터인가 저녁 가정예배 시간만 되면, 찬송가 한 권을 놓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작은아들이 그 찬송가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왜 그 찬송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그것이 ‘새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선물 받은 사람일까, 선물을 준 사람일까?” “선물을 준 사람이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니,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니?” “주는 사람이요.” 이제는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먼저 작은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이제 이 찬송가를 어떻게 해야 하니?” “형아에게 줘야 해요.” 승국이는 찬송가를 형에게 줬습니다. 뜻하지 않게 작은아들이 순순히 찬송가를 주자, 큰아들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정직한 마음은요, 승국이가 양보했으니까 제가 갖는 거예요.”

이미 동생의 양보로 자기 소유가 된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승훈아, 정직한 마음을 말한 것은 참 잘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는 정직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단다.” 심각한 표정을 짓던 큰아들이 마침내 찬송가를 승국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매일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그 찬송가를 갖도록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이재철

참 좋은 예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겸손’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의로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믿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33장 19-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은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와 진노하심과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한 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한 없이 부끄럽고 작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시발점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증거를 대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던 날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께 떠나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눅 5장 8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한 밤에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이때 주님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놀랐던 것보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사도요한은 공생애를 지내시던 예수님과 무척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예수님께 머리를 기댈 만큼 친밀감을 표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왜 주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 사도가 활동하던 때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써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구원사역을 앞에 두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 모든 환란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는 것, 찬란한 승리를 거두고 영광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고통과 환란이 찾아올 때 세상에서 우리가 마구 흔들리는 이유,

세상의 유혹과 불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유들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려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그 동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들어 왔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가장 많이 전했던 것도 돌아온 탕자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푸근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J. D. 그리어의 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에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런 용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줄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이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감내하셔야 했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해 보였다고 말하는데, 그 의는 죄를 향한 그분의 의로운 분노를 의미한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일의 무서운 대가를 본다. “

이런 맥락에서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했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김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를 경험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용서를 경험하면 그 용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의 주인공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 준 것은 은혜요

내 두려움을 없애 준 것도 은혜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그 분 앞에서 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바냐 선지자는 보았기 때문이죠.

분노의 날에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인간 ‘실존’입니다.

또한 스바냐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전능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분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저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정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서는 분이십니다.

‘전능함’이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어의 책에 보면 엘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제자 찰스 미스너는 아인슈타인이 평생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설계는 엄청나게 그지없다.

사실 나는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조직화된 종교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에 관한 설교자의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그는 우주의 창조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위엄을 봤고, 그래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진짜일 리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영어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 . . "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큰 기쁨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조용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떠들썩한 간증들의 이야기로 가득찼고, 흔히 말하는 간증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기쁨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니,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종교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또한 누군가의 비난거리가 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조용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가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초동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죠. 그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다쳤으며 여섯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재산피해도 약 2천 7백억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삼풍백화점 이한상 사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의 인생이 줄지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난 2011년 그는 몽골의 선교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첫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구치소, 어둠 속 빛을 보다

-사고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집 근처 교회를 나갔지만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많았습니다. 부귀영화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사고와 함께 호화로운 삶은 끝났습니다. 옷 한 벌, 손가락 하나 제 것이 없는 삶이 시작됐죠."

-북역 생활은 어땠습니까.

"(벽을 보고 돌아앉으며) 한쪽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쪽 뻗으면 닿을 정도로 좁은 방. 사람 얼굴만한 창문. 불안했죠.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였을까요. 24시간 벽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펜글씨를 쓰고 소설, 만화책도 읽었습니다."

-해소가 되던가요.

"전혀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 힘들더군요. 그때 손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성경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안 가보셨겠지만 구치소 독방엔 조명이 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눈 가까이 대고 읽었죠.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전이라... (잠시 말을 멈춘 뒤) 주일예배 말씀 외에는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회사 일이 우선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참석했을까요. 그마저도 지각하기 일쑤였죠." 그는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서 눈을 떼 수 없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걸친 예수의 물음은 심장을 때렸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게 없어진 뒤 하나님은 제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네'라고 답했습니다."

"왜 나를 죽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엔 민망하기도 했지만 여러 차례 사랑고백도 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무엇이었나요.

"'아버지, 제가 죄인이면 저만 죽이지지 왜 그 많은 사람까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은.

"답변을 쉽게 안 주시더군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마음에 주신 단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조건, 무작정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출소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임 경력이 아깝다며 작은 회사를 맡기려는 지인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길이 명확히 보이더군요. '세상 것을 다시 좇지 않겠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선다.'"

-몽골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2년 7월 출소한 뒤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아는 선교사를 만나러 몽골에 갔죠. 기도를 하는데 '이곳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구하라는 뜻이었죠. 한국에 돌아와서 주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출소 후 병상에 계셨던 아버님(고 이준 전 삼풍그룹 회장)도 찾아 몽골행을 알렸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당시 헛것을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흔들어 깨워야 정신이 돌아오시곤 했죠. 쇠약해진 아버지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는 '믿는다'고 답하셨습니다. '임종을 못 지켜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바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회장은 몽골로 가겠다는 아들에게 "그래, 남자는 일을 해야지"라는 말을 건넸다. "'너는 꼭

복음을 전해야해'라는 뜻이었어요. 지금도 힘들 때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지 한달 보름 만에 이 회장은 세상을 떠났다. 임종을 지키진 못했다. "가슴에 묻었다"고 했다. 몽골, 인생 2막

-사고현장에 다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지 않았습시다. 너무나 아픈 일이라 사건과 관계있는 분들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분 중에도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 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평안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출소 후 국내에서 활동할 생각은 없었나요.

"제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소속과 재산이 없었고 사람들은 차가웠습니다. 물의를 일으켰고, 많은 분께 상처를 안겼습니다. 국내 활동, 불가능했죠. 누가 써주겠습니까. 교회도 선교사 파송을 거절할 정도였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인데 무슨 선교를 하냐.' 인식을 깨기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엔 다른 선교사들의 일을 돕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활용해 건물이나 교회를 지을 때 선교사님들을 도왔죠. 지금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3시간 가는 거리의 헝거르라는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에게 침을 놓아주신다고요.

"스킨십이라 할 수 있죠. 사람들과 유대를 갖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30대 초반 침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국에서 체침(體針)을 공부한 분에게 매일 두 시간씩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유용하게 쓸 줄 몰랐죠. 2006년에 캐나다대체의학협회에서 주는 침술사 자격증도 땀어요. 100점 만점에 82점. 커트라인을 2점 넘겼습니다."

-현지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길가다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육류를 많이 먹어 중풍, 관절염 환자도 많죠. 의료 시설이 없는 그들에게 침술은 큰 힘이 됩니다.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비전, 그리고 회복

-선교여건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좋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일도 많아졌고요. 2008년부터는 몽골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전도하면 처벌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방식의 선교가 필요하겠군요.

"지난해 하나님께서 옥수수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김순권 옥수수박사가 몽골에 맞는 신종 옥수수 종자를 개발했는데 그걸 몽골에 재배하려 합니다. 몽골은 목축업이 주 산업입니다. 사료로 그만한 게 없습니다. 식량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몽골인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아직 옥수수의 효과와 기능을 잘 모릅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가 들여온 선진 문물이 발전의 기틀이 된 한국 사례를 알리고 있어요."

-옥수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옥수수는 선교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사역하는 중 김 박사님 등을 만났고 선교의 도구이자 식량 문제의 해결책으로 옥수수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할 말이 많지 않은 듯했지만 조심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얼굴에서 웃음을 볼 수 없었다. "사고로 상처받은 분들을 생각하면 웃을 수

없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자니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도 아니잖아요."

인터뷰 막바지, 그는 조심스럽게 '회복'을 이야기했다.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도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다친 분 숫자를 훨씬 넘는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의 인생에 잠잠히 찾아오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미국교회에서 있었던 논쟁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고,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교회에서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한다는 것과 동성애자들에게 목회자가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문제를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교회가 취할 태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자의적인 결과로 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성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술을 싫어하고 담배 냄새도 싫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카지노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도박을 하고 돈을 잃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승리했다'라는 말이, 싸워서 이긴 경우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죄에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조용히 싸우면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보여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갔던 간증들이, 다른 누군가에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강해서 이겼던 부분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부분들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